

배달노동자들 “산재보험료 절반 부담은 차별” 헌법소원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 기각되자 헌법소원 “사업주 전액 부담이 산재보험 취지에 부합”

배달노동자들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와 달리 산재보험료를 절반 부담하는 것은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헌법재판소는 해당 청구를 헌법재판에 회부하기로 했다.

배달노동자 노동조합인 라이더유니온은 19일 서울 마포구 합정동 이동노동자 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헌법소원 청구인인 박정훈 위원장 등은 앞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와 달리 산재보험료를 사용자와 노동자가 절반씩 부담하도록 규정하

는 고용산재보험료 징수법이 위헌이라며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했다. 서울행정법원이 이를 기각하자 헌법소원을 냈다.

현재는 이번 헌법소원을 지정재판부에서 사전 심리한 뒤 전원재판부에 회부하기로 했다.

박 위원장 등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산재보험료 부과 처분 취소 청구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법원은 평등권이 침해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지난 5월 원고 패소 판결했다.

라이더유니온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와 특

수형태근로종사자를 구분해서 산재보험료 부담을 달리해야 할 합리적인 이유를 찾기 힘들다”며 “근로자의 경우 1시간만 일하더라도 산재보험료를 사업주가 전액 부담하는데, 배달노동자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라는 이유만으로 산재보험료를 절반 부담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산재보험료 사용자 부담 문제를 해결한다면 산업재해가 사용자의 책임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면서 모든 노동자에게 차별 없이 산재보험을 적용할 수 있게 된다”며 “배달노동자를 이용해 사업을 영위하고 이윤을 얻는 사업주가 산재보험료를 전액 부담하는 것이 산재보험제도의 취지에 맞다”고 주장했다.

최이슬기자



‘덥다 더워’ 더운 날씨가 이어진 19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한강공원을 찾은 시민들이 마포대교 아래에서 더위를 식히고 있다.

여수 가두리 양식장 화재...1시간여 만에 진화

여수의 해상에 설치돼 있는 가두리 양식장에서 화재가 발생해 1시간여 만에 진화했다.

19일 여수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8일 오후 9시 44분께 여수시 돌산읍 송도 북동방 370m 해상 가두리 양식장에서 불이 났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신고를 받은 해경은 경비함정과 구조대를

급파해 소화기 등을 이용해 초기진화했다.

이어 경비정에 탑승한 119 소방대원 등이 도착해 1시간여 만에 완전 진화했다. 불은 바지선과 창고 등을 태웠으며 가두리양식장에는 종사자 등이 없어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해경은 바지선 소유자와 목격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화재 경위를 조사하



여수=기동취재본부

디지털 성범죄 가해자 70%는 ‘친한 사람’

‘디지털성범죄 안심센터’ 100일...불법촬영 1160개 삭제

서울시가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통합지원센터를 위해 지난 3월29일 문을 연 ‘서울 디지털성범죄 안심지원센터’가 100일로 개관 100일을 맞았다.

지난 100일 간 149명의 디지털성범죄 피해자가 센터에 도움을 손길을 요청했다. 센터는 삭제 신고 등 다양한 방식을 통해 1160개의 불법 촬영물을 삭제 지원했다. 영상물 삭제에 포함해 수사·법률, 심리·치유 등 총 2637건을 피해자에게 지원했다.

특히, 센터는 경찰과 공조해 가해자 5명의 검거도 이끌어냈다. 피해 접수가 들어온 건에 대해 채증, 고소장 작성, 경찰서 진술 지원, 법률·소송지원 등 전 과정을 밀착 지원함으로써 가해자 검거에 일조했다고 시는 밝혔다.

검거된 5건은 ▲여자친구와의 성관계 영상을 불법촬영해 유포하려던 사례(1건) ▲게임 중 청소년에게 접근해 사진을 받아낸 후 유포 협박한 사례(1건) ▲대학생 때 만난 후 3년 뒤 연락해 사진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며 스토킹한 사례(1건) ▲쇼핑몰 아르바이트 불법촬영 사진을 유포한 사례(2건)였다.

센터를 통해 지원을 받은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총 149명의 연령대를 보면, 20대가 50명(33.6%)으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했다. 30대가 28명(18.8%), 아동·청소년이 22명(14.8%)으로 뒤를 이었다.

가해자는 애인(189건, 26.1%), 채팅상대(189건, 26.1%), 지인(104건, 14.4%), 배우자(19건, 2.6%) 순으로, 친밀한 관계에서 발생하는 범죄가 약 70%를 차지했다.

피해유형은 ▲유포불안 545건 ▲불법촬영 348건 ▲유포·재유포 313건 ▲성적괴롭힘 139건 ▲스토킹 122건 순이었다. 특히, 불법촬영·유포 피해뿐 아니라 최근에는 불법 촬영물이나 합성사진을 가지고 스토킹을 하거나 성적괴롭힘을 하는 피해 양상이 두드러지고 있다. 예컨대, 게임, 채팅 앱,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 온라인 공간이 가진 익명성을 이용해 친구를 성적 괴롭힘의 대상으로 만들거나, 불법촬영물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며 지속적으로 스토킹하는 사례 등이 센터에 접수됐다. 아동·청소년의 경우 마음에 들지 않는 친구의 사진을 올려 신상정보를 유출하고, 사진을 합성해 불특정 다수에게 성희롱 대상으로 소비되도록 괴롭히는 사례가 많았다.

‘서울 디지털성범죄 안심지원센터’에서는 피해자들이 이곳저곳을 헤매 필요 없이 긴급 상담부터 고소장 작성, 경찰서 진술지원, 법률·소송지원, 심리치유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을 지원받을 수 있다. 피해자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영상물 삭제까지 원스톱 지원한다. 또한, 서울시는 서울기술연구원과 협업을 통해 전국 지자체 최초로 ‘AI 삭제지원 기술’을 개발, 내년 상반기부터 도입한다. 현재는 상담사가 일일이 불법 촬영물을 찾는 방식이라면, 앞으로는 AI가 365일, 24시간 영상을 찾아내게 된다.

디지털 성범죄 피해를 입은 아동·청소년, 시민 등은 센터 상담전화 ‘815-0382(영상빨리)’ 또는 카카오톡(지지동반자 0382)로 문의하면 된다.

오유나기자

신문인쇄 전문기업 (주)남도프린테크

(주)남도프린테크는 신문사 법인설립, 신문발행업 등록, 편집, 인쇄까지 토탈 서비스 가능한 업체입니다.
믿고 맡겨주시면 성실하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광주·전남 최초로 신문윤전판 출력시스템 도입
- 월등한 색상 구현력에 더러움 현상은 최소화!
- 최상의 인쇄 품질로 고객 만족을 실현하겠습니다

(주)남도프린테크
광주광역시 광산구 평동로803번길 93-10(용동) 평동산단 3번도로 끝
Tel : 062)943-0135~6 Fax : 062)943-0134 담당자 : 010-2656-4747(장상문 전무)